

S-Oil, 자사주 매각 “난항”

대림산업 포기로 장기화 조짐 ... 롯데 · 한진이 유력

정유 시장의 해묵은 이슈인 S-Oil의 자사주(28.4%) 매각이 또다시 걸돌고 있다.

8월 롯데에 이어 한진, 대림산업, STX 등이 잇따라 매입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한 분위기가 일부 감지됐으나 최근 사정이 매우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Oil이 정유기업에 “재무적 투자자(FI)와의 공동인수는 안되고 단독인수만 허용한다”고 못박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림산업이 자금 부담 등을 우려해 인수전에서 받을 때를 빼면서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9월1일 “S-Oil이 FI와의 공동인수는 안된다는 조건을 들고 나왔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건설경기 부진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할 때 자금부담이 커서 인수 의사를 거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S-Oil로서는 국내에서 영원히 함께 할 파트너를 구하는 것으로, 마치 안정적인 배우자를 고르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면서 “향후 자금과 경영문제 등 여러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단독인수를 고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경영권 행사를 둘러싼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S-Oil 대주주인 Saudi Aramco측은 공동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룹 계열사에 얽히지 않은 독립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에 난관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일반적인 M&A와 같이 경쟁입찰 방식 등을 택해 인수 희망가격 등 제반 조건과 고용, 경영방향 등 정밀한 심사기준에 대해 일부기업들이 제시한 대안을 점수화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과 맨투맨 접촉으로 매매를 성사시키려는 협상 과정도 거래 시간표를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S-Oil이 개별기업과 각개약전식으로 협상하면서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S-Oil도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고 각 매입희망 주체도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급하게 살 이유가 없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물론 서로 의견만 맞으면 전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매매 협상은 아주 초기 단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S-Oil도 자사주 매각 이슈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지만 거래 성사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일부 읽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롯데가 협상을 부인하던 과거와 달리 인수전 참여 사실을 확인하면서 여유있는 자금력 등을 내세워 나름대로 적극적인 관심을 표시하고 있고, 한진도 인수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어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정유 시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여전히 롯데가 정유·석유화학 분야의 수직계열화 필요성과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후보이며, 다음으로 한진을 꼽는 분위기”라며 “그러나 협상 진척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희규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9/01>